통도사, 숲 속 음악회로 힐링 선사

'숲속 작은 음악회 쓰담쓰담' 5월 1일, 개최해 눈길

음악회 통한 시민 위로나서
문화 · 자연 치유의 장 선물
한영애 등 유명가수 초청해
시민 위한 문화공간 회향의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축총림 통도사가 5월 1일 경내 무풍한송로 송수정 앞 특설무대에서 '숲속 작은 음악회 쓰담쓰담'을 개최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5월 1일 경내 무풍한송로 송수정 앞 특설무대에서 '숲속 작은 음악회 쓰담쓰담'을 개최했다.

음악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맞아 통도사를 방문하는 모든 시민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며, 코로나 극복 및 일상 회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도사는 음악회를 기획 의도에 따라 힐링을 선사하기 위해 무풍한송로(舞風寒松路) 송수정 카페 앞에서 열었다. 무풍한송로는 푸른 소나무길과 시원한 계곡이 있어 장소 자체만으로도 힐링을 선사한다. 또 한옥 카페 송수정(送愁亭)은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이 '무풍한송로를 따라 흐르는 계곡에 근심을 흘려보낸다'는 의미로 이름붙인 곳이다. 음악회에서 대중들은 서로가 오랫동안 잘 버텨주었다는 무언의 격려와 웃음을 건넸다. 가족들과 통도사를 방문한 사람들은 오고 가는 발걸음을 멈추며 힐링을 만끽했고 노래하는 가수들도 "이 길은 극락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통도사는 이번 음악회를 시민들을 위한 선물로 마련하기 위해 가수 한영애씨와 '양지밴드' 그리고 국악 그룹 '비단' 등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가수들을 초청했다.

'무녀의 제사와 같다'는 무대 평가를 받는 가수 한영애 씨는 강물처럼 고요한 음색으로 흡인력 있는 무대를 보여줬다. 카리스마 있는 음색으로 대표곡 '누구없소'와 '여울목', '코뿔소' 등을 부르며 대중과 함께해 박수를 받았다. 또 양지밴드는 영화 화양연화의 주제곡으로 널리 알려진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Qeizas Qeizas Qeizas)'와 '노란 셔츠의 사나이' 등을 재해석해 불렀다. 퓨전 국악그룹 '비단'은 전통 소리를 담은 악기 해금, 대금, 가야금, 타악 등 국악기로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곡을 선사했다.

공연을 위해 마련된 객석은 만석이었고 많은 시민들은 서서 관람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여주었다. 가족들과 함께 통도사를 방문한 시민들은 진정한 휴식을 얻은 느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통도사는 지난해 개산대재를 맞아 10월 9일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을 초청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숲속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장기화와 안전을 위해 음악회가 취소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통도사는 앞으로 이번 '숲속 작은 음악회-쓰담쓰담'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음악 공연을 기획중이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몸과 마음이 움츠려 들었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희망의 시작이 보이는 이런 시기에 음악회를 열 수 있어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며 "통도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불보사찰이며 산중에 있지만 여러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자 한다. 오늘 공연은 문화공간 회향의 의미를 담은 한마당"이라고 설명했다.

5000여 불자 창원서 봉축 환희 장엄


창원시불교사암연합회는 5월 4일 마산 해양누리공원 중앙무대에서 창원 연등축제 및 시민봉축음악회를 봉행했다.

창원시 연등축제 5월 4일 봉행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창원특례시 연등축제와 시민봉축음악회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창원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인, 불지사 주지)는 5월 4일 마산 해양누리공원 중앙무대에서 창원 연등축제 및 시민봉축음악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창원불교사암염합회장 정인 스님, 성주사 조실 흥교 스님, 봉축부위원장 정법사 광우 스님, 성주사 법안 스님, 정인사 원행 스님, 불곡사 도홍 스님, 석봉암 월봉 스님, 백운사 석봉 스님, 구룡사 무성 스님, 천웅사 성우 스님, 반야사 혜명 스님, 미타사 선혜 스님 외 지역스님과 각 사찰 회장단, 허성무 창원시장, 하충식 한마음병원 이사장, 조보현 경남 예총회장, 알리, 포레스텔라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봉축법요식과 2부 음악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법요식은 육법공양(정법사 영축다도회), 삼귀의, 반야심경, 관불의식, 기원문(봉축부위원장 광우 스님), 청법가(연합합창단), 봉축법어(흥교 스님), 봉축사(봉축위원장 정인 스님), 경축사(허성무 창원시장, 하충식 한마음병원 이사장), 찬탄경문(성주사 법안 스님), 발원문(조보현 경남 예총회장), 축원(백운사 석봉 스님), 사홍서원 등으로 진행됐다. 2부 시민봉축음악회는 연합합창단 음성공양을 시작으로 신유식(색소폰), 오유진, 알리, 박서진, 포레스텔라 등이 나섰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3년 만에 펼쳐진 전북지역 환희의 연등물결

전북 봉축위, 연등문화축제 봉행


전북봉축위원회는 4월 30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과 연등축제를 봉행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 2년간 열리지 못했던 연등축제가 3년만에 다시 열렸다. 전북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일원, 진성)는 4월 30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과 연등축제를 봉행했다.

연등축제가 열린 전주시청 노송광장 주변에 마련된 체험부스에서는 관욕체험, 연꽃 만들기, 단주 만들기 등 각종 체험 행사가 진행됐으며 참석 대중들에게 비빔밥이 제공됐다.

법요식에 앞서 열린 마이산 탑사 '탑밴드'의 난타 공연은 행사장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고 전북무형문화재 18호 전북영산작법보존회의 영산작법 시연 공연은 불교문화예술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이날 연등문화축제는 금산사 회주 도영 스님을 비롯하여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과 천태종, 보문종, 용화종등 전북지역의 각 종단을 대표한 스님들과 조봉업 전북도행정부지사, 김승수 전주시장등 각급 기관장들과 남궁선 금산사신도회장등 신행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불자들이 동참했다.

공동봉축위원장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어려울 때일수록 빈자일등의 정성스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부처님 대하듯 아끼고 힘껏 사랑하자"고 당부했다.

공동봉축위원장 진성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은 고난을 이겨내는 데 항상 부처님의 말씀과 조사님들의 지혜가 함께해왔다"며 "연등축제는 불교적인 행사가 아닌 모두의 안식과 행복을 나눠주는 문화축제로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전통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김희중 주교, 은해사에 봉축메시지 전달 영천 은해사(주지 덕조)에 4월 29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김희중 대주교가 방문해 봉축메시지를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해동용궁사, 부처님오신날 '인재불사' 회향

동국대 지역미래장학 참여
장학금 총 2360만 원 전달



해동용궁사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이 이 땅에 나투신 의미를 인재불사로 전달했다.

해동용궁사(주지 연규)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이 이 땅에 나투신 의미를 인재불사를 통해 회향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5월 4일 동국대에서 '제12회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는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과 해동용궁사 주지 연규 스님, 권보성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으며, 해동용궁사는 부산 출신 재학생 12명에게 각 100만 원, 총 1200만 원을 전달했다.

주지 연규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어 뜻깊다"며 "해동용궁사를 찾아주는 불자들의 염원을 담아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미래 불자를 위한 육성장학에 함께 뜻을 모아 장학금을 전달한 해동용궁사의 모든 불자들에게 감사하다"며 "등록금 걱정 없이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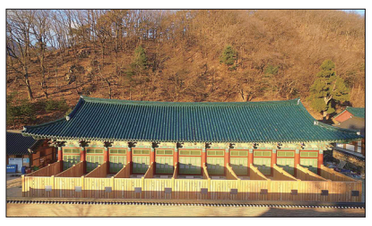
이와함께 해동용궁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 학생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도 개최했다.

해동용궁사는 5월 8일 경내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하고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해동용궁사는 부산 및 기장 지역의 중 · 고 · 대학생 15명을 선발해 장학금 총 1160만 원을 수여했으며 장학금은 권보성 신도회장, 최성만 불자 등 해동용궁사 불자들이 십시일반 후원했다.

한편, 해동용궁사는 5월 4일 광주에 소재한 정광고등학교에 쌀 1000kg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기장농민돕기 및 광주 지역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진행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신흥사 향성선원 '무문관'으로 재개원

5일 하안거 결제법회…회주 우송 스님 등 폐문정진



'조계선풍 시원도량(曺溪禪風 始原道場)' 설악산 신흥사가 향성선원을 무문관으로 재개원하고 선맥을 이어간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는 "불기 2566년 하안거 결제(음력 4월 15일)를 맞아 향성선원을 무문관(無門關)으로 전환해 개원한다"고 5월 6일 밝혔다. 무문관 수행은 독방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최소한의 공양만 받으면서 용맹정진하는 불교의 혹독한 수행법이다.

신흥사 회주 법검 우송 스님은 조실 무산 스님의 원력을 이어 새로운 설악산문의 선풍 진작을 위해 향성선원〈사진〉을 무문관으로 전환해 새롭게 문을 열게 됐다. 우송 스님은 지난 3년간에 걸친 향성선원 보수불사를 진두지휘한 데 이어 이번 하안거 결제 3개월 동안 수좌들과 함께 무문관에서 폐문정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향성선원은 15명 내외의 수좌스님들이 정진해왔으며 이제는 11명의 수좌가 향성선원에 방부를 들이고 3개월 동안 무문관 수행을 이어간다.

신흥사 향성선원 무문관 재개원을 겸한 하안거 결제법회는 오는 5월 15일 오전 10시 신흥사 설법전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흥사 회주 법검 우송 스님은 "향성선원 무문관에서 수좌스님들이 열심히 수행정진해 제2, 3의 도의 국사와 무산 스님이 나올 수 있도록 본말사 대중 모두가 열심히 외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울산 지장정사, 법요집 불사 성료

5월 1일 봉정, 8개월간 사부대중 원력모아 편찬



울산 지장정사(주지 현우)는 5월 1일 2층 대법당에서 〈지장정사 법요집(불공의례, 영가시식)〉 불사회향 봉정식을 거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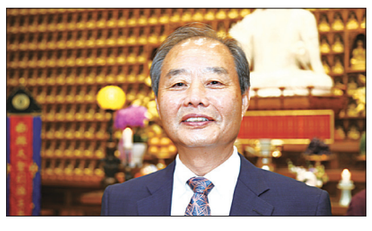
봉정식에는 지장정사 현우 스님,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황용선 거사대표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현우 스님은 "법요집 불공의례와 영가시식 두 권을 4월 초하루 공양발원하여 회향함에 감사드린다"며 "업장소멸과 정진발원을 소망하며 법요집을 불사했다. 8개월간 수정을 거쳐 대한불교조계종 기준에 맞춰 편찬된 지장정사 법요집의 공덕으로 신도들이 행복한 신행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요집을 공양올린 황용선 거사대표는 "법요집 불사는 사부대중 모두가 복을 짓는 마음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정광사, 권상록 신임 신도회장 취임

5월 1일 취임식 봉행…사부대중 500여 명 동참



대한불교천태종 울산 정광사(주지 류화산)는 5월 1일 경내 3층 대법당에서 권상록 신도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취임식 및 정기법회에는 정광사 주지 류화산 스님, 구인사 원로원장 주정산 스님,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권상록 정광사 신도회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주지 화산 스님은 "정광사 신도는 한 가족이다"며 "5월을 맞아 신도회장 취임식을 갖게 돼 뜻깊다. 기쁜 마음으로 신도회와 불자들이 합심해 함께 정진하자"고 발원했다. 권상록 신도회장은 취임사에서 "부처님의 가피로 정광사 불자님들이 평화롭고 안락하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주지 스님을 잘 보필해서 울산 정광사 신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찰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함안불교사암연합회 봉축법요식 봉행

4월 30일 함안문화원서…각계 마음 모아



함안불교사암연합회(회장 원명, 달전사 주지)는 4월 30일 함안문화원 2층 대강당에서 불기2566년 봉축연합대법회를 봉행했다.

법요식 행사는 함안수륙보존회의 괘불 이운, 삼귀의, 바웃다합창단 육법공양, 원명 스님 봉행사, 이병철 함안군수대행 축사, 찬불가, 헌공의식, 발원문 및 인사말(조용찬 신도회장), 사홍서원, 공지사항, 회향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연합회장 원명 스님, 칠보사 정광 스님, 청룡사 수암 스님, 발원통사 영공 스님, 불연사 월암 스님, 이병철 함안군수대행, 조용찬 신도회장 등 각 사찰 임원단, 합창단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원명 스님은 "새로운 희망의 시대, 화합과 정진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자"고 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